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0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킴

성경: 엡 4:1-6, 출 26:15, 24-29, 요 17:11, 21-23

엡 4:1-6, ¹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²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출 26:15, 너는 시팀 나무로 성막을 세우는 데 쓸 널빤지들을 만들어라.

24-29, ²⁴ 그것들이 밑에서는 서로 겹치게 하고, 그 꼭대기에서는 한 고리에 완전히 연결되게 하여라.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²⁵ 그러면 널빤지가 여덟 개가 있게 되고, 한 널빤지 밑에 두 개의 받침, 다음 널빤지 밑에도 두 개의 받침이 있어서 은받침이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²⁶ 또 시팀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되, 성막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 다섯 개, ²⁷ 성막 다른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 ²⁸ 널빤지들 가운데를 지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여라. ²⁹ 그리고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요 17: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21-23 ²¹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²²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³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I.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 엡 4:1-6.

엡 4:1-6, ¹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²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³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지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 A. 에베소서 4 장 4 절부터 6 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 곧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과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침례에 근거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엡 4:4-6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 B.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 행 1:14, 2:46.

행 1:14,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2:46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 C.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반드시 이 유일한 하나, 곧 그 영의 하나를 화평의 때는 띠로 힘써 지켜야 한다 — 엡 4:1-3.

엡 4:1-3¹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²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³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 D. 그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합해져 한 영이 되셨다 — 롬 8:16, 고전 6:17.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 우리는 주님과 합해진 이 영에 우리 전 존재를 돌이키고 고정시켜야 한다 — 롬 8:6 하.
롬 8:6 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2.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합해진 이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한다 — 롬 8:4.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 내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 엡 1:23.

엡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II.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 곧 요한복음 17 장의 주님의 기도에서 계시된 삼일 하나님 안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대된 하나이다 — 요 17:11, 21-23.

요 17: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21-23 ²¹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²²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³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III.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하나는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성막으로 예표된 하나이다. 성막의 마흔여덟 개의 널빤지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막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 A.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첫째 방면은 (연결시키는 가로대들을 끼워 두는 곳인) 세 개의 금고리에서 볼 수 있다. 세 개의 금고리는 믿는 이들을 연결시키시기 위한,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초기의 영, 거듭나게 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한다 — 출 26:15, 24-25, 29, 요 3:6, 엡 1:13, 4:3, 30, 비교 창 24:22, 눅 15:22.

출 26:15, 너는 시팀 나무로 성막을 세우는 데 쓸 널빤지들을 만들어라.

24-25, ²⁴ 그것들이 밑에서는 서로 겹치게 하고, 그 꼭대기에서는 한 고리에 완전히 연결되게 하여라.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²⁵ 그러면 널빤지가 여덟 개가 있게 되고, 한 널빤지 밑에 두 개의 받침, 다음 널빤지 밑에도 두 개의 받침이 있어서 은받침이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9, 그리고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엡 1: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4:3,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창 24:22,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사람은 무게가 반 세겔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무게가 십 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주면서,

눅 15: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 B.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둘째 방면은 (사람의 본성을 가진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널빤지들에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이 입혀진 것에서 볼 수 있다 — 출 26:29.

출 26:29 그리고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1. 성막의 널빤지들의 하나는 시팀 나무 안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입힌 금 안에 있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가 우리의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묘사해 준다 — 요 17:21.

요 17: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 널빤지들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의 빛남, 곧 금의 표현 안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빛남이자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영광 안에 있다 — 요 17:22-24.
요 17:22-24 ²²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³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 금으로 예표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초기의 영께서 그 영의 하나이시다(엡 4:3). 그러므로 금으로 입혀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가 확산되는 것이다.
 - a. 우리가 금으로 더 많이 입혀질수록, 우리는 하나를 더 많이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하나는 더 강해진다 — 비교 골 2:19.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b. 우리는 금으로 입혀지는 대신에, 요한계시록 17 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처럼 단지 금으로 도금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금의 분량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 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계 17:4.
계 17:4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 c. 널빤지들은 충분하게 금으로 입혀질 때에만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임을 가리킨다 — 요 17:23.
요 17: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d. 길이가 약 4.5미터이고 너비가 약 68센티미터인 시팀 나무 널빤지를 두껍게 입힐 만큼의 충분한 금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은 반드시 무거운 널빤지를 지지하고, 그것을 다른 널빤지들(믿는 이들)과 결합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무겁고 두꺼워야 했다 — 출 26:16.
출 26:16 널빤지의 길이는 십 규빗으로 하고, 각 널빤지의 너비는 일 규빗 반으로 하여라.
 - e. 하나는 우리의 인성 안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7:21, 23.
요 17: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님의 회복은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회복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금의 실제 무게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된 백성을 그분 자신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9장).

5. 하나는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이다 — 골 2:19 하, 빌 3:8 하.

골 2:19 하,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빌 3:8 하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a.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금이 부족하다면, 우리 모두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b.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가 필요하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회복 안에서 전진할 수 없다.
c. 견고하고 참된 이러한 하나 안에 지켜지는 유일한 길은, 체험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 빌 3:10.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6. 하나님의 금의 본성은 결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위에 입혀지지 않고, 시뮬 나무로 상징된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본성에만 입혀질 것이다.

- a. 금으로 입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어디든 변화가 있는 곳에 금으로 입혀지는 것도 있다.
b.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이다 — 롬 8:4, 빌 1:19-21 상.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빌 1:19-21 상 ¹⁹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 c. 우리가 모두 변화되고 금으로 입혀졌을 때에만,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의견 대립이 없을 것이다. 유일한 안전장치는 금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 고후 3:16-18, 롬 12:1-5.

고후 3:16-18,¹⁶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날 것입니다.¹⁷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¹⁸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12:1-5¹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²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³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⁵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C.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셋째 방면은, 마흔여덟 개의 널빤지들을 함께 붙잡아 주고 그 널빤지들을 하나 안으로 이끌어 주는, 연결시키는 가로대들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결시키는 가로대들은 초기의 영께서 연결시키시는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연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6:26-29, 엠 4:3.

출 26:26-29,²⁶ 또 시팀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되, 성막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 다섯 개,²⁷ 성막 다른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²⁸ 널빤지들 가운데를 지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여라.²⁹ 그리고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엠 4:3 화평의 때는 피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1. 연결시키는 가로대들은 연결하는 힘이 있도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연합을 위하여 금을 입혔다. 가로대들이 시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영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비교 엠 4:2 각주 1.

엠 4:2 각주 1 겹쳐진 것은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미덕들로 우리는 (다만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짊어진다. 즉 말썽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표현이다. 이러한 미덕들은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것이다.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를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 미덕들이 언급된 사실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서로를 매는 그 영 안에는 변화된 인성,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지로 연결시키는 가로대들은 성령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둘 다를 포함하는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롬 8:16)을 상징한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3. 성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것은 가로대들이 각 널빤지에 있는 고리들을 통과하여 널빤지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이 그 영과 협력함으로

연결시키시는 영께서 그들을 통과하시어 그들을 다른 믿는 이들과 연결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상징한다.

4. 연결시키시는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시어 우리를 다른 이들과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연결시키시는 영은 언제나 세워진 널빤지들을 가로지르시기 때문이다 — 마 16:24.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 a.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함께) 가로지르시는 영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의 영이 가로지르시는 영과 하나일 때마다, 우리는 연결시키시는 영을 체험한다.
- b. 초기의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연결시키시는 영이 되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와 건축을 갖게 되고, 의견 대립과 분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 c. “이 메시지는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격심한 고난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많이 훈련하였다. 점차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 고리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금의 확장이 없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의견을 달리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체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3 권, 진리 메시지, 10 장).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 빌 3:10, 아 2:8-14.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아 2:8-14 ⁸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⁹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¹⁰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¹¹ 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시오. ¹² 땅에는 꽃이 피고, / 노래의 때가 되니 /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¹³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¹⁴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 e.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그 영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어야 한다.